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요약

2004. 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 업 자 원 부

목 차

I . 계획수립의 배경	1
II . 대내외 여건변화	4
III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5
III-1. 계획의 비전과 목표	5
III-2.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9
III-2-1.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9
III-2-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14
III-2-3. 수도권외의 질적발전 추구	17
III-2-4.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21
III-3. 지역혁신발전계획(안)	24
III-3-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24
III-3-2.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안)의 주요내용	28
III-3-3. 지역 연고산업 육성	36
III-4. 계획의 실행과 관리	39
III-5.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로드맵	45
IV . 5년후 국가균형발전의 모습	46

I. 계획수립의 배경

I-1. 계획수립의 의의

□ 과거 성장정책의 성과와 한계

- 1960년대 이후 우리는 압축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서 1만달러로의 제1의 국가도약 달성
 - 그러나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정책, 낮은 농산물가격의 인위적 유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지역간 불균형심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
-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그동안 수차에 걸친 성장전략의 수정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요소투입형 성장패턴 유지
 - 1997년 IMF외환위기와 마(魔)의 국민소득 1만달러 벽을 10년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

□ 지역간 불균형의 현주소

-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
 - 수도권 집중억제 위주의 소극적인 방법에 치중, 지역간 격차의 근본적·구조적 원인 해소에는 미흡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

< 주요 지표의 수도권집중 추이 >

	<u>인구</u>	<u>GRDP</u>	<u>제조업체수</u>	<u>지방세수입</u>
'80	36%	41%	44%	54%
'01	47%	47%	57%	59%

- 부산, 대구, 광주 등 외형상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도 자립기능은 태부족
 - 권역내에서도 광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간의 경제력 및 생활수준 격차가 현저하며, 상호간의 기능적 연계·협력체계 미비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요소투입위주의 발전에서 기술, 인재 및 문화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의 정책전환** 추진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구현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추진

< 추진경과 >

- ‘03.6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 발표
- ‘03.8월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통보
- ‘03.12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03.10월 ~ ‘04.5월 :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16개 광역지자체, 20개 중앙행정기관, 산·학·연 및 NGO 등 1,000여명 참여
- ‘04.5월 : 관계행정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I-2. 계획의 성격

- ☐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과 상호연계를 중시하는 협력적 계획
- ☐ 지역의 역량과 선택에 기초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상향식 계획
- ☐ 수도권외의 경쟁력 증진과 지방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적 계획
-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고려되는 계획
- ☐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기존계획을 상호 연계하는 포괄적이며 나침반 역할을 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
- ☐ 계획수립과정에 행정기관,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NGO 등이 모두 참여하여 정책수요를 반영한 참여적이며 수요자중심의 계획
 -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는 근본적 차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의 악순환 · 농업중심 경제구조 · 저성장 함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격차의 심화 · 요소투입형 경제구조의 한계 · 저기술-저혁신 함정
계획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계획 · 지자체 배제-중앙정부 주도 · 투입주도형 성장모델 · SOC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계획 ·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 혁신주도형 지역특성화발전모델 ·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강화

II. 대내외 여건변화

-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국가보다는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
 -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국가의 중요성이 퇴색하고 지역의 중요성이 대두(glocalization)
 - 국제적으로는 EU 등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는 클러스터 중심으로 재편
- 집권·단절형 사회에서 수평·네트워크형 사회로의 변혁
 - 중앙집권적인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주체간의 대등한 관계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수평사회로 이행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간의 단절형 사회구조로부터 주체간 협력과 창조적 경쟁의 네트워크형 사회로 전환
- 교통·정보통신혁명과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균형발전여건 성숙
 - 경부·호남고속철도 개통 및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국토의 시·공간적 구속성 완화
 - 문화와 웰빙(well-being),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따른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 1995년 민선자치제 시행이후 지자체의 기획·추진 역량 제고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증대
-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혁신거점으로서의 도약
 - 첨단기술로 무장된 일본과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

Ⅲ.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Ⅲ-1. 계획의 비전과 목표

Ⅲ-1-1. 비전과 목표



부문별계획(중앙정부)과 지역혁신발전계획(지자체)을 종합,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Ⅲ-1-2. 추진전략

□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 세계화, 지식정보화·문화의 시대에 경제발전의 관건은 투입요소 중대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며,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추구
- 혁신주도형 발전의 핵심은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과정의 시스템화,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효율적 활용
- 양적 성장 모델과는 달리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상호학습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

□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낙후지역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낙후상태를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한계
-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은 지역간 격차시정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
-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국토의 미활용 잠재력의 재발견을 통해 전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
- 시혜적 성격의 배분이 아닌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제고

□ 수도권 질적 발전 도모

-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차별적인 특성을 확보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돕는 상호의존과 相補의식을 공유
 - 수도권의 경우 글로벌경쟁체제에서 수도권이 아니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분야 및 기능 강화에 역점
 - 지방은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지방에 대한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적은 분야의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우선적으로 추진

□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성

-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가능한 도로망 구축
 - 口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완성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횡축을 확충하여 종축과 횡축 및 순환도로망이 네트워크화되는 국토골격 형성
- 국토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에 기여
 - 네트워크형 도로망 완성으로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
 - 국제교류·개방거점 개발로 주변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토대 구축

<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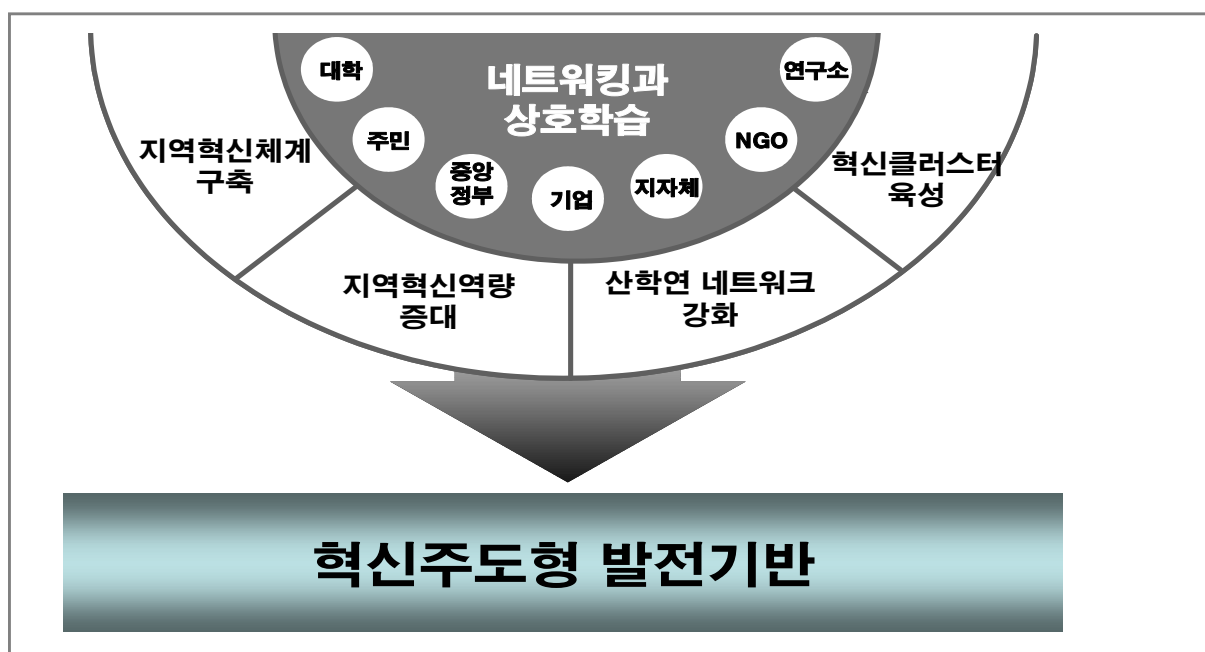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4~'08)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 혁신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을 조성
- 제2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9~'13)은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의 주력산업화, 세계적 클러스터로의 진입 등 혁신성과의 극대화를 추구
- 제3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4~'18)은 혁신의 질적 고도화 단계로 초일류 원천기술의 보유와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명실상부한 세계적 일류클러스터와의 경쟁을 통해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Ⅲ-2.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Ⅲ-2-1.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한국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하여
2~3개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

- 우리 경제는 그동안 기술모방, 물량확대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에 실패
 - SOC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 배양 소홀
 - 반면 선진국들은 세계화 및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에 따라 혁신형 국가로의 개혁을 추진
- ⇒ ‘정체냐 발전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도 혁신주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가. 지역혁신체계 구축

□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지역혁신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

(1) 지역의 대표기구로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이 참여하여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주요시책 심의
- 민주적 협치구조(democratic governance)의 정착으로 지역내 합의 도출

(2) 지역의 혁신역량에 대한 기초조사

- 지역산업의 분포,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R&D능력 파악을 위한 지역혁신역량 기초조사

(3) 지역혁신사업의 종합조정 추진

-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예산검토·기획·조정·평가로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
- 대학, 기업, 연구소 등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킹과 공동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추진

(4) 지역혁신박람회의 정기적 개최

- 지역혁신 성공사례 발표회 등 지역혁신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혁신문화 창달 및 상호학습의 장으로 활용
- 지역혁신 성공모델 심화·발전 및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지역혁신체계의 조기구축 지원

나. 지역혁신역량 증대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와 기술이 체화된 인적자본을 배출하는 지방대학과 과학기술이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역할
-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
 - (1)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추진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대표적 국책시범사업
 - 지방대학의 핵심인력 양성과 활용을 위하여 5년간 총 1조 3,700억원 투자('04년 2,200억원 투입)
 - (2) 지방대학 구조개혁 등 추진
 - 지방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추진
 -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추진으로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 (3) 지역별 CRC(Content Research Center) 설립·운영
 - 지방대학에 특성화된 콘텐츠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 산업 R&D거점으로 활용
 - (4) 정부R&D예산의 지방지원비율 확대('03, 27%→'07, 40%)
 - 지방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패키지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하고 우수연구원의 지방정착 유도
 - (5) e-Science 비전하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인력, 장비, 연구결과 등 다양한 R&D정보의 종합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과학기술정보인프라를 지원
 - (6) 기술혁신거점단지의 네트워킹 및 효율성 강화
 - TP, TIC, RRC, ITRC 등 기술혁신거점단지를 전국으로 확대·조성하여 지역전략산업 발전의 지원시스템 구축

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주체인 대학·기업·연구소의 네트워킹 활성화가 필요

□ 혁신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주요과제

(1) 「산학협력 중심대학」 등 육성

- 주문식 맞춤형 교육 등 산학일체형 연구개발 및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기업간 협력을 활성화
- 지역의 우수한 이공계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여 산업시설과 우수연구인력의 지방유입 및 정착 유도

(2) 「산·학·연 협력 수범사례 확산」 추진

- 가족회사제도 등 유형별 우수사례 발표회, 순회설명회 개최로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3) 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 활성화

-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리 등 대학이 수행하는 R&D사업의 통합·조정 운영 추진
- 적극적 투자허용(지주회사 설립 검토 등)으로 연구소·대학보유 기술·지적재산권의 사업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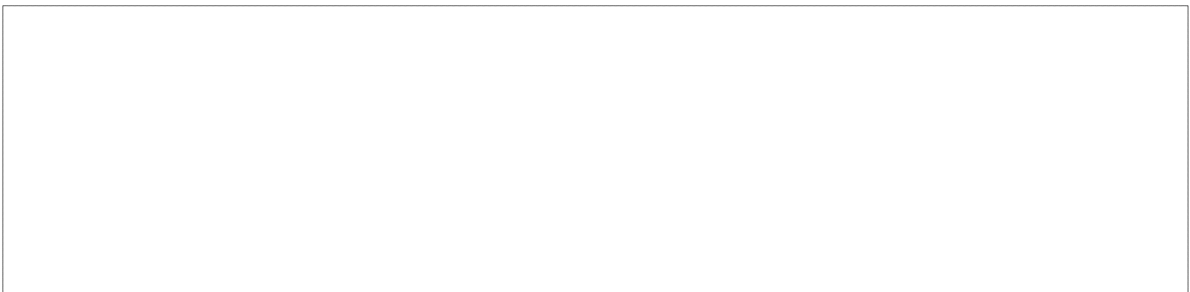
(4) 대학·기업·연구소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지식교류를 제공하는 'INNO-Cafe(혁신사랑방)' 조성

- 산·학·연 네트워크의 사랑방 역할로 암묵지 공유 및 혁신 창출('04, 24개소 → '08, 150개소)

라.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 특성화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서비스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필요
-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주요과제
 - (1) 대덕연구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 기존의 R&D기능에 상업화 역량을 보완하고 특별법 제정('04, 하반기)으로 혁신클러스터구축을 제도화
 - (2)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 7개 산업단지(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시화, 원주, 군산)를 시범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확산
 - (3)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미래형 혁신도시 10여개 건설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기관 이전, 160개 기업 입주
 - (4) 지역혁신체계의 틀 속에서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가속화
 - 기술혁신 및 상호네트워킹 등 소프트웨어측면을 중점 지원
 - ※ 4개지역 : 12,036억원('04~'08), 9개지역 : 11,067억원('02~'07)
 - (5) 테마파크 등 대규모 복합 관광레저단지 조성
 - (6)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외국인전용단지, 교육·주거여건 개선 등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 혁신클러스터의 발전단계 >



Ⅲ-2-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낙후지역을 혁신활동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활성지역으로 전환

-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지역격차는 단순한 물리적 차원을 넘어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개발에서 낙후된 농촌, 산촌, 어촌, 도서지역 등은 내생적인 발전역량의 부재와 자립기반의 상실로 만성적인 저발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저발전으로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활력소생은 국민통합을 위한 최우선과제
- ⇒ 낙후지역의 역량강화는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요구



가. 낙후지역 개발

- 낙후지역의 혁신유도를 위해 일방적인 재원확대보다는 분산되거나 중복된 사업의 체계화로 투자성과의 극대화 추진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주요과제

(1) 낙후지역 선정 및 재정지원

- 인구감소율, 지역의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을 종합평가, 전체 기초지자체의 30%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 낙후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3년마다 평가하여 낙후지역을 재선정·고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

(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낙후지역발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군단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 장기적으로 도서, 오지,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등 낙후 지역 지원사업의 통합 및 체계화 추진

나. 농산어촌형 RIS구축

- 농산어촌형 RIS란 '산업기반과 혁신역량이 영세한 농산어촌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내부인사, 출향인사, 인근 대학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개방형 지역혁신체계'를 의미

- 농산어촌형 RIS구축을 위한 주요과제

(1) 새로운 생활패턴의 변화에 부응한 5都2村사업 시행

-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 체류하면서 영농체험·관광·문화·휴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지방농업혁신 클러스터' 육성

- 보성녹차혁신클러스터, 안성브랜드사업단 등

(3) 1차산업의 혁신과 2,3차산업과의 융합

- '선운산 복분자' 브랜드화 등 농업중심의 1차산업에 가공, 유통 등 2차·3차산업을 연계,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및 문화상품 개발·유통 지원

(4) 주민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시

- 장성 아카데미 등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다.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지역개발시책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1) 지역별로 특성화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 완화

-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특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규제 철폐

(2) 지역마다 차별화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

- 웅기마을(울주), 우리콩테마단지(속초), 죽공예단지(담양) 등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 개발·지원
- 농산어촌 특화자원, 폐광·폐교 등 기능상실 자원 활용
- 문화·역사·테마·레포츠·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원

(3) 향토성 짙은 관광·이벤트 사업의 기획·개발

- 녹색농촌체험마을(양평), 인삼축제(금산), 나비축제(함평) 등

(4) 지역의 전통과 여건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문화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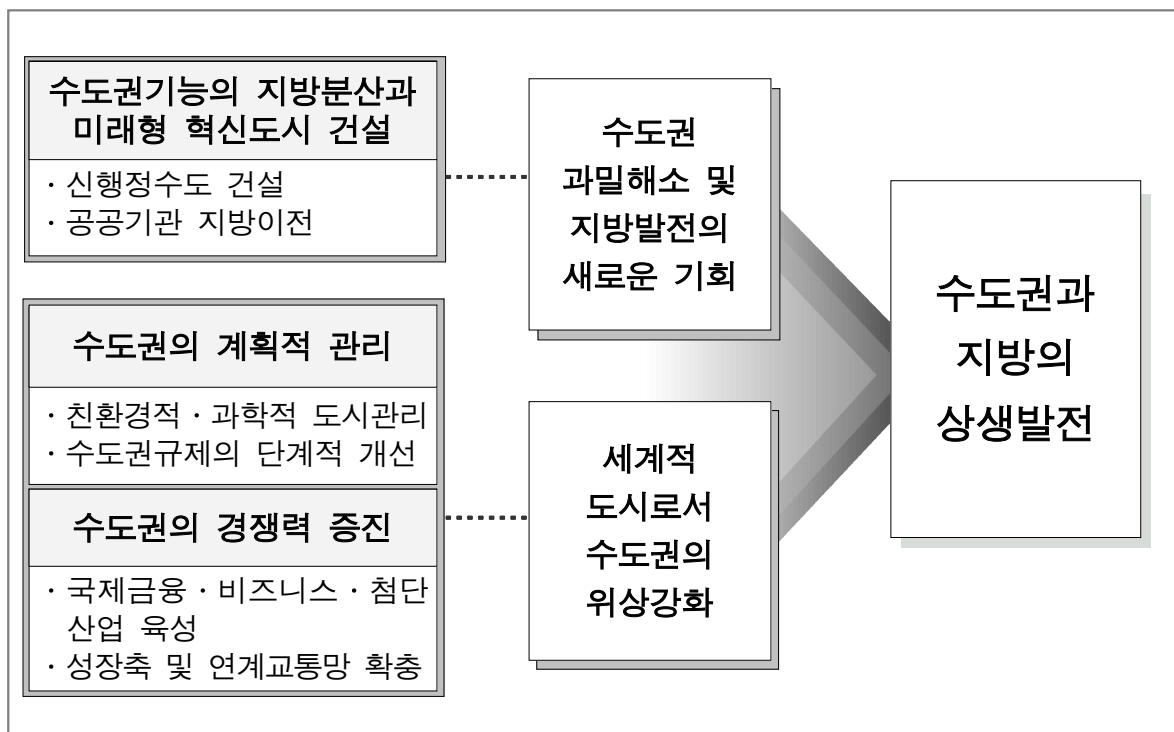
- 영상중심도시(부산), 문화중심도시(광주), 전통유교문화도시(안동) 등

Ⅲ-2-3.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여건 조성

-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
 -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주택·교통난,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유발
-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증진 시급
- 수도권집중과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수도권분산 시책 및 규제개혁 등을 연계추진

⇒ 일정시차를 두고 균형발전정책과 연동, 단계적으로 접근



가.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

-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
-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위한 주요과제
 - (1)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 2011년까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2,300만평, 인구 50만명)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 이전 추진
 - (2)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미래형 혁신도시(city of innovation)를 전국 각지에 개발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되 지방대학 및 핵심기술 연구센터와의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
 - 교육·문화·주거여건을 갖춘 지식기반·생태·디지털 첨단신도시 형태로 개발
 - 19개 특화기능군으로 분류하여 배치하되 50만평, 2만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
 - (3) 수도권 지연성(地緣性), 민간기관 성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 이전
 - 저렴한 주택제공, 탁아서비스 제공, 최고의 교육환경조성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 (4)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 요소비용 상승 등으로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지원
 - 이전 적지에 첨단·고부가가치 창업기업 유치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활용

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경제, 사회, 환경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단편적·획일적 관리방식에서 계획적 관리방식으로 전환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주요과제
 - (1) 환경용량을 고려한 과학적 도시계획 및 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 국토환경성평가, 토지적성평가 등 첨단도시계획 기법활용, 종합적 환경대책 등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 (2) 중장기 계획, 규제에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도권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
 - 입지, 교육시설 및 개발사업 등
 - (3) 관리목표의 설정,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 등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적 관리시스템 구축
 - 주택, 교통, 환경 등 수도권 관련 분야별 계획수립시 기본방향 및 목표의 정합성 유지
 - 계획과 토지이용의 연계, 성과모니터링제 등 수도권 관리의 실효성 확보
 - (4) 효율적인 수도권 관리를 위한 추진체제 구축
 - 중앙정부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광역적 연계 등을 감안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 수도권 소재 지방정부는 제시된 수도권 관리방향의 틀 내에서 지역의 토지이용 및 성장관리 등 구체적인 정책 집행

다. 수도권 경쟁력 증진

□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정보·금융·물류 산업 육성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추진

□ 수도권 경쟁력 증진을 위한 주요과제

(1) 지역별 특성과 지역혁신체계 등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권 개발 및 지방과의 균형 유도

- 서울은 고부가가치(high value-added)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동북아 금융 허브,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로 육성
- 인천은 수도권배후의 항만과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
-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접경지역은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개발

(2) 서울과 주변의 일극중심형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하여 공간경쟁력 강화

- 서울-인천-경기 일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 육성
- 기존의 경부, 경인축 외에 수인축 등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성있는 발전 유도
- 서울지향적 교통축을 다핵격자·순환형 광역교통망 체계로 개편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간 연계를 강화

Ⅲ-2-4.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가능한 도로망 구축

- 수도권·경부축 등 대도시권 위주의 투자로 동서축 등 여타지역의 개발은 소외
 -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은 간선도로망 등 기본적인 인프라의 미비가 그 원인
 - 국토순환교통망 완성을 통한 네트워크형 국토건설은 우리 국토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대외개방으로 주변국과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 과제
- ⇒ 수도권집중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SOC측면에서 뒷받침

가. 「□자형·방사형 고속교통망」 조기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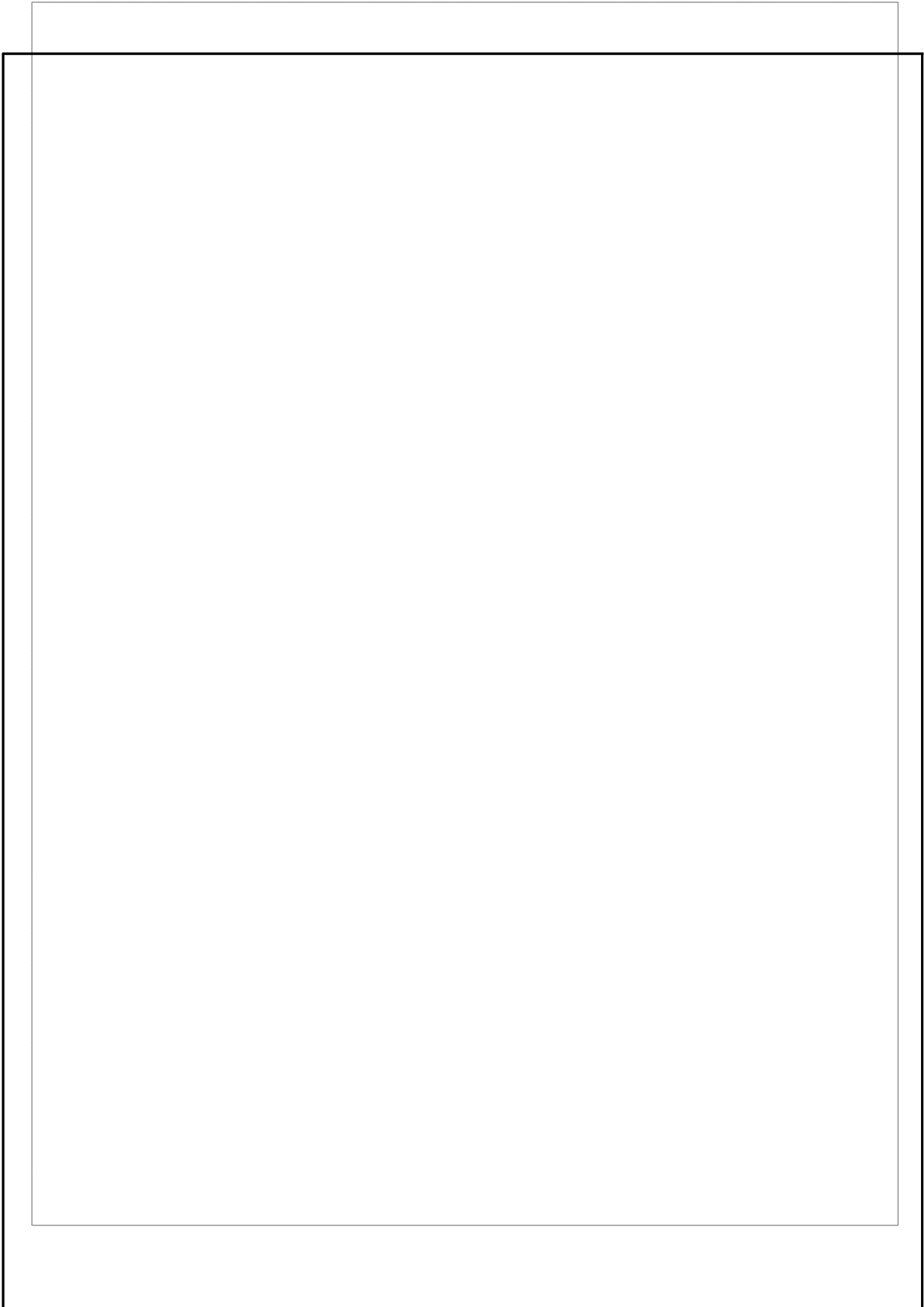
-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92년부터 「국가간선도로망구축 계획(7×9)」을 추진하여 왔으나 전국토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국토건설에는 미흡
 - 인천, 군산 등 연안중심항의 국제물류기지화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
- 「□자형·방사형 고속교통망」 조기구축을 위한 주요과제
 - 건설중인 노선의 완성으로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 고속도로)을 조기접속(건설시 생태축을 고려)

나. 동서 횡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

- 태백권 등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륙 국가간선도로망, 특히 동서축 간선도로망의 건설이 핵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협력 강화에도 기여
- 동서 횡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을 위한 주요과제
 - 함양-울산고속도로, 제천-태백간 38호국도 추진 등

다. 대외개방거점 확보

-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토대로 국내외 혁신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거점 육성
- 개방거점 확보를 위한 주요과제
 - 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을 개방거점으로 육성
 - TCR, TSR, TMR, TMGR과의 연결을 추진, 유라시아 진출기반 마련



Ⅲ-3. 지역혁신발전계획(안)

Ⅲ-3-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가. 지역 전략산업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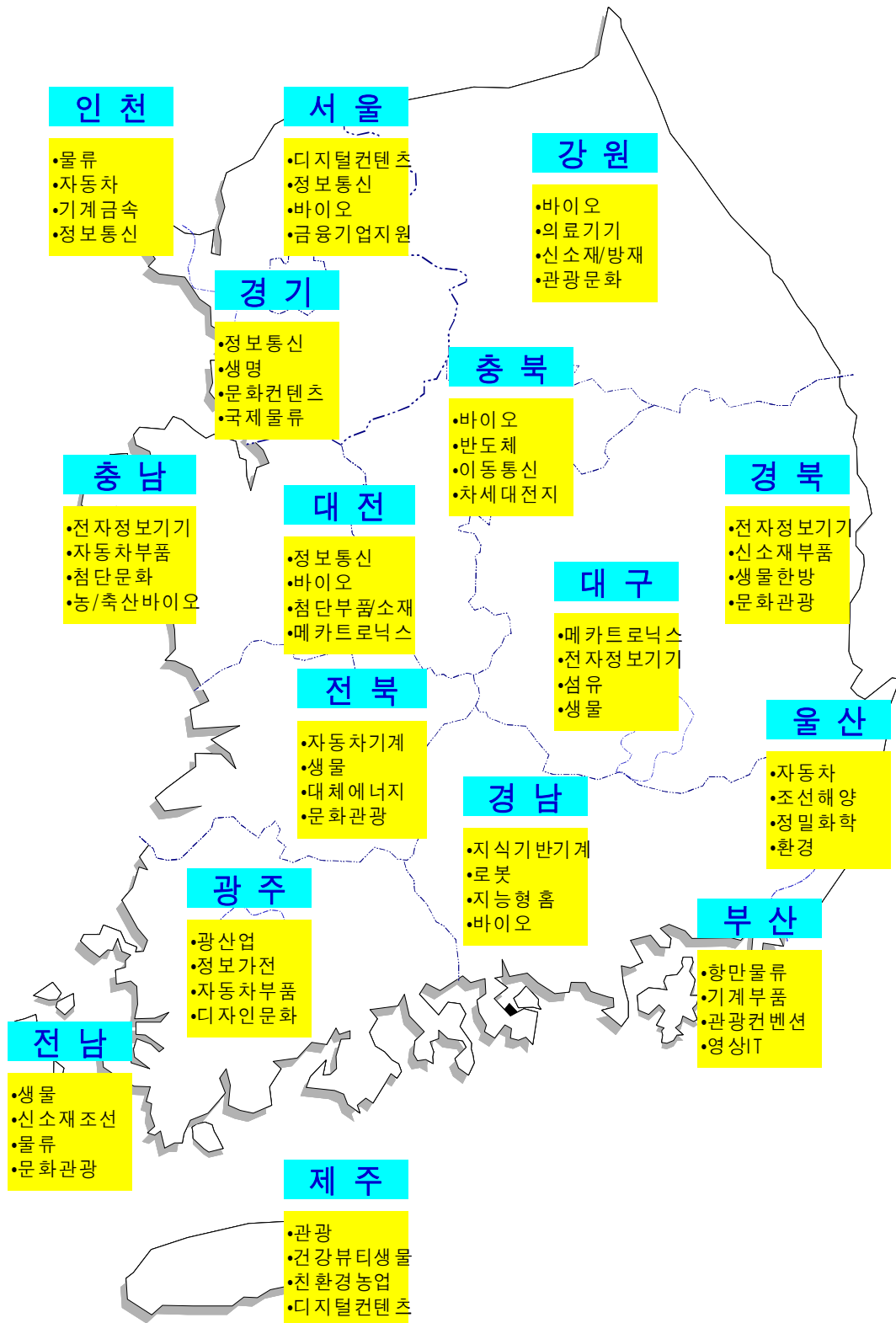
□ 지역 전략산업 선정과정

- 16개 광역지자체는 지역내 의견수렴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각각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
- 수차례의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전략산업의 종류와 전략산업내의 중점 산업부문을 조정
 - 지역의 자율적 선정결과 및 육성의지를 최대한 존중

□ 전략산업의 선정 기준

-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
- 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의 전략산업을 반영
 - 기존의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토대로 하고, 국가계획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의 지역별 산업집적도 등
- 지역내에 이미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지식기반 신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우는 시·도 여건에 따라 별도의 전략산업 또는 전략산업의 세부 중점 분야에 포함

□ 지역 전략산업의 현황



나. 지역 전략산업의 주요특징

□ 지역별 강점 및 특성과 연계

- 미래 신산업 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이 전체의 45%를 차지
 - 로봇산업, 디지털컨텐츠, 차세대전지, 스마트 홈 등 9대분야
- 기존 제조업을 지식기반주력산업 중심으로 고도화
 - 전자정보기기산업(대구, 경북), 조선산업(부산, 울산), 자동차산업(울산), 지식기반기계산업(대구, 경남)
- 자연경관과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
 - 바이오산업(강원, 제주, 전남), 건강뷰티·생물산업(제주) 등
- 동북아허브 등 대외지향적 발전전략 추구
 - 금융·국제비즈니스(서울), R&D허브(대전), 교통물류(부산, 인천, 전남), 국제자유도시(제주)

□ 지자체간 중복되는 전략산업은 중점분야를 차별화

- 바이오(또는 생물)산업과 전자(정보)·정보통신산업은 각각 12개 지자체, 10개 지자체가 전략산업으로 선정
 - 세부 중점분야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

중복 전략산업	지역별 중점분야		
바이오산업	· 서울(바이오 신약·의료) · 경기(바이오 의약) · 충북(바이오 신약·장기) · 전남(농업·해양식품) · 경남(생물화학소재·의료)	· 대구(바이오신소재) · 강원(실버청정·해양) · 충남(농축산) · 경북(생물한방·해양생명) · 제주(건강·뷰티)	· 대전(바이오의약) · 전북(발효산업)
전자정보산업	· 대구(모바일) · 경북(임베디드)	· 광주(광전자) · 충북(반도체·이차전지)	· 충남(디스플레이)
정보통신산업	· 서울(멀티미디어) · 경기(IT부품소재)	· 인천(S/W산업) · 충북(이동통신)	· 대전(통신기기)

다.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 인접 광역지자체간 산업별·기능별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특성화발전의 상호 시너지효과 도모
 - 광역지자체간 유사한 업종에서의 인력 및 기술개발, 생산기반 구축 등 기능별 역할분담과 협력

<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예시) >

- 광주·전남북 부품·소재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
 - 광주와 전남북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첨단부품소재, 신소재, 자동차·전자·조선관련 부품산업간의 연계
- 대구·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예정)을 중심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구미국가산업단지, 칠곡「경북하이테크빌리지」등과 연계하여 대구-칠곡-구미를 잇는 IT산업 클러스터 형성
- 대전·충청권 바이오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
 - 대전(생물의약), 오송(보건의료), 제천(한의학), 논산(동물자원), 영동(기능성식품)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각각 R&D, 인력양성,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바이오산업 발전 여건을 조성
- 부산·경남·울산 부품·소재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
 - 부산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활용하고 창원·녹산국가산업단지, 울산오토밸리 등과 연계, 기계·자동차·조선산업 지원

Ⅲ-3-2.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안)의 주요내용

□ 서울 :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

- 국내 최상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 비즈니스·혁신의 중심도시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형성
- 금융산업 및 비즈니스 특화지구, 정보통신산업 특화지구 등 지역별 특화지구 제도 도입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도모

전략산업	주요사업
디지털콘텐츠산업	· 멀티미디어 콘텐츠센터 건립 ·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정보통신산업(멀티미디어)	· 서울 IT Green Line 조성 · IT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바이오산업(신약·의료)	· 바이오/나노 특화지구 연계 사업 · 서울 바이오혁신센터 설치
금융 및 기업지원서비스산업	· 국제금융센터 건립 · 국제금융기관,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등을 유치

□ 부산 : 물류·비즈니스·해양문화가 함께하는 해양수도

-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육성
- 항만물류산업클러스터 구축, IT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구

전략산업	주요사업
항만물류산업	· 자유무역지역 개발 ·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개발
기계부품소재산업	·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 부산기계부품·소재기술센터 설립
관광컨벤션산업	·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 컨벤션뷰로 법인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
영상·IT산업	· 영화종합후반작업 지원체계 구축 · 부산영상센터 건립

□ 대구 : 동북아의 산업혁신클러스터 거점

- ‘동남권의 R&D 거점 구축’, ‘선도·우수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으로 역동적·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창출
- 섬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메카트로닉스, 모바일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동남권 거대 산업클러스터의 중추도시로 발전

전략산업	주요사업
메카트로닉스산업	·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건립 · 센서기술기반 확충사업
전자·정보기기산업	· 모바일 단말상용화센터 건립 ·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
섬유산업	·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 화섬산지 체질강화 기반구축
생물산업	·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건립 · 한방산업클러스터 조성

□ 인천 : 시민과 함께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 국내외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하여 국제비즈니스 허브 도시로의 발전 도모
- 서해안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동북아 물류 혁신센터 구축 등 물적·인적 인프라 조성

전략산업	주요사업
물류산업	· 동북아 종합물류 시스템 구축 · 물류·수송관련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산업	·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 미래형·친환경 자동차관련 기술개발
기계·금속산업	· 기계·금속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 신소재(철강, 나노) 관련 기술개발
정보통신산업	· 디지털콘텐츠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임베디드 S/W 지원센터 구축

□ 광주 : 서남권 첨단과학 · 산업 · 문화 중심

- 광산업과 첨단부품 · 소재, 문화산업이 융합된 첨단 클러스터 구축으로 권역내 첨단산업의 선도 역할 수행
- 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집적도시, 전통문화 예술과 하이테크의 접목을 통한 동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와 문화수도로의 도약

전략산업	주요사업
광산업	·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부품·시스템 기술개발 · 광응용제품 개발 및 반도체 광원 시험생산 지원
정보가전산업	· 광주 디지털컨버전스센터 설립 · 운영 · 스마트 홈네트워크 기술개발 지원
자동차 · 첨단부품소재산업	· 자동차/전자 공통기반 기술개발 지원 · 나노기술 집적센터 기반구축사업
디자인 · 문화산업	· 디자인센터 건립 및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 ·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 대전 : 세계 과학기술의 허브도시

-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형 발전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선도
- 대덕R&D특구 조성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R&D 핵심 거점 구축과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주력

전략산업	주요사업
정보통신산업	· 차세대 이동통신 클러스터 구축 ·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양성
바이오산업	· 바이오산업진흥원 건립 · 통합정보시스템 · 인적 네트워크 구축
첨단부품 · 소재산업	· 차세대전자·신소재부품 기술개발지원 · 나노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메카트로닉스산업	· 지능형 로봇 표준화 및 공동마케팅 구축 · 산학연 및 기업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 울산 : 한국 주력산업의 지식기반화 선도

- 기존 주력산업의 첨단형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성장을 선도
- 생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여 생산중심에서 혁신주도형 성장 기반 구축

전략산업	주요사업
자동차산업	· 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 설립 및 운영 · 차세대자동차산업 핵심기술개발 및 선진화
조선해양산업	· 조선해양산업 종합지원체제 구축 · 고부가가치 선박해양 구조물 개발
정밀화학산업	· 정밀화학산업 지원단 설치 · 정밀화학산업 기술혁신단지 조성
환경산업	· 울산환경기술종합지원센터 설립 · 울산산업단지의 에코모듈화 구축사업

□ 경기 :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정보 허브

- 혁신주체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
- IT-LCD클러스터 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도내 지역균형발전 도모

전략산업	주요사업
정보통신산업	· 판교 IT 벤처 업무단지 조성 ·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생명산업	·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 미래 의약 개발 및 시험평가 사업
문화컨텐츠산업	· 만화·영상, 출판, 게임 등 문화산업클러스터 연계 · 광명음악밸리(역세권 개발과 연계) 조성
국제물류업	·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 강원 : 세계속의 생명·건강산업 수도

- 관광과 연계한 농산어촌의 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로 육성
- 생명과 건강을 테마로 기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인간·생명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

전략산업	주요사업
바이오산업	· 실버·청정 바이오기술개발센터 건립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고성·강릉·동해)
의료기기산업	· 원주권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신소재·방재산업	· 신소재·방재산업 기술연구개발 기반강화 · 플라즈마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관광문화산업	· 테마관광루트(‘신토불이길’ 네트워크) 개발 · 애니메이션 창작기획 전문인력 양성

□ 충북 : 바이오토피아(Biotopia) 충북

- 오송 생명공학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BT와 IT의 결합
- 바이오산업 중심의 전략 및 지연산업 특화발전과 이를 연결하는 4B-8C(4개벨트-8개클러스터)의 광역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주요사업
바이오산업	· 바이오통 통합지원센터 ·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개발사업
반도체산업	· 시스템IC 설계지원센터 · 시스템IC 기술개발사업
이동통신산업	· 이동통신 기술지원센터 · 차세대 이동통신 고급인력양성
차세대전지	· 전지산업진흥센터 · 전지설계·제조 기술개발사업

□ 충남 : 동북아 경제권의 신성장산업 육성

-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대중국교역의 교두보로서 서해안 생산기지 형성
- 기흥-천안-청주 지역을 연계하는 IT밸리, 천안·아산-서산-당진을 연계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산업	주요사업
전자·정보기기산업	· 디스플레이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 디스플레이 교육센터 운영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 자동차 부품소재 R&D 집적화센터 설립 · 자동차산업 혁신체계(RIS)구축
첨단문화산업	·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 영상콘텐츠 Data Bank 센터
농·축산바이오산업	· 바이오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 인삼·약초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 전북 : 21세기 환황해경제권 생산·교류의 핵심 거점

- 지역 발전 중추인 핵심거점지역 전주-익산-군산-김제-정읍을 잇는 T자형 산업벨트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과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발전모형 구축

전략산업	주요사업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 첨단기계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고도화 사업
생물산업	· 바이오파크 구축사업 ·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시스템 구축사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 나노 방사선 영상기술 개발사업 ·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 맞춤형 체험관광상품 활성화사업 ·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사업

□ 전남 : 신산업 · 물류 · 관광의 중심지

- 기존산업의 집적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물류 및 관광중심지로의 도약
- 기존산업과 지식기반 신산업간의 유기적 연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산업화

전략산업	주요사업
생물산업	· 청정생물산업 클러스터 단지조성 · 기능성식품 종합지원단지 조성
신소재 · 조선산업	·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조선기자재 집적화단지 조성 및 업체유치
물류산업	· 항만물류종합지원센터 건립 · 차세대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NILS) 구축
문화관광산업	· 문화 · 관광 복합컨텐츠 개발 · 21C 뉴 흥길동 및 氣 문화프로젝트사업

□ 경북 : 환동해 경제권의 혁신교류거점

- 경북도내 4개 권역별 특성화 및 연계화 추진으로 환동해 산업기술의 전략적 중심지화 추진
- 안동(생물, 한방), 구미(전자정보), 경산(학원단지), 경주 · 포항(문화,소재)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구미-칠곡-대구를 연계한 IT산업밸리 조성

전략산업	주요사업
전자 · 정보기기산업	· 디스플레이 지출지원센터 설립 · 임베디드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신소재 · 부품산업	· 나노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 자동차용 신소재 및 금형기술 개발
생물 · 한방산업	· 한방치료제 및 기능성제품 연구개발 · 해양생명체 유래 유용 신물질 연구개발
문화 · 관광산업	· 신라천년 문화체험관 건립 · 명상문화컨텐츠 종합개발원 조성

□ 경남 : 과학 · 기술 · 정보 거점의 첨단산업 중심지

- 메카트로닉스, 항공 · 우주, 조선 등 전략산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 기계Mecha-know벨트(김해-창원-사천), 생명공학Bio벨트(김해-진주-통영 · 고성 · 거제) 중심의 산업집적
- “울산-부산-경남”으로 연결되는 동남권 광역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주요사업
지식기반기계 산업	· 지역특화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지원센터 조성
로봇 산업	· 차세대 인간 공존형 제조 로봇 개발 · 경남 로봇밸리 조성
지능형 홈 산업	· 지능형 홈 핵심기술 확보 · 지능형 홈 산업화 연구센터 건립
바이오 산업	·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GMBT) 조성

□ 제주 : 동북아 관광 · 휴양 중심

-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간-환경-지식 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
- 연구기반확충 및 우수첨단기업의 지역유치로 기존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모색

전략산업	주요사업
관광산업	·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조기 추진 · 지역 항공사 설립
건강 · 뷰티 생물산업	·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설립 · 향장품, 건강 식품 · 의약품 개발 육성
친환경 농업생명산업	· 우량종자 · 종서 · 종구의 개발 및 생산 지원 · 친환경 농축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디지털컨텐츠산업	·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 관광과 접목된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Ⅲ-3-3. 지역 연고산업 육성

□ 16개 광역지자체별로 10개 내외의 지연산업 선정

- 세계 틈새시장을 겨냥한 지역 연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연산업을 선정·육성
- 선정된 지연산업을 유형별로 보면 식품관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관광, 문화, 농림어업(축산포함) 및 섬유산업의 비중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육성전략 도출

-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혁신중심의 지연산업 육성전략을 마련

□ 지연산업은 주민 주도의 내생적 지역혁신발전 전략으로 추진

- 지역 지연산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육성 전략을 마련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 개발
 - 지연산업 관련 상품의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농산어촌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관광·문화 상품화

< 지연산업 육성전략(예시) >

- 전북은 순창장류산업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육성
 - 장류식품 및 발효식품 발전 인프라 구축과 장류기업과 원료 생산 농가간 계열화, 장류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집적화를 도모
- 충남은 금산 인삼·약초산업을 실버산업으로 확장
 - 금산 지역의 풍부한 한약재 생산자원을 활용한 인삼·약초 바이오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한 실버바이오산업으로 육성
- 경기도는 이천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자산업클러스터로 육성
 - 도자특구지정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 기반조성하고 도자 타운 조성으로 관광명소화 해외 관광객 유치
- 경북은 기능성 상품의 개발 등으로 의성 마늘가공산업을 육성
 - 의성 마늘연구소 건립하여 한지형 의성마늘의 재배, 육종, 병리, 약리분석 연구, 마늘 가공식품 연구개발, 마늘 영농 기계화사업 추진
- 경남은 하동 녹차산업을 세계적인 명차로 육성
 -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품질향상기술 보급하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차문화와 유적을 실용적 감각에 접목하여 Green tourism 녹차관광산업을 선도
- 강원은 유기농업을 상품기획, 벤처농업가 육성 등으로 통해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차원으로 육성
 - 자연순환형 유기농 생태마을을 건설하고, 유기농업벤처기술학교 및 강원유기농업종합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 시·도별 주요 지연산업 현황 >

지역	주요 지연산업
서울	인쇄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부산	범천동귀금속산업, 기장해조류 가공·유통산업, 자갈치시장, 미니토마토 유통산업, 화훼부류 유통산업 등
대구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등
인천	강화도새우젓, 완초공예산업, 수산자원조성사업,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 사자발약쑥특산물 등
대전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등
광주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전문특화상업거리 육성, 양동재래시장 문화거리조성사업, 화훼·원예산업 등
울산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경기	경기북부가구산업, 이천도자기산업, 양주회암사지종합개발사업, 수동관광지종합개발사업,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 등
강원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등
충북	바이오농업,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등
전북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옷칠산업, 순창장류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등
경북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등
경남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하동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등
제주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굵게 표시된 산업은 세계 틈새시장 진출이 가능한 지연산업을 의미

Ⅲ-4. 계획의 실행과 관리

Ⅲ-4-1. 국가균형발전 추진체제

- 계획수립과 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지역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새로운 중앙-지방관계의 설정

- 지방정부주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원리에 따라 지원사업 결정
 - 중앙정부는 비전 제시 등 국가차원의 조정역할 수행
- 국가의 일방적인 統治(government)에서 동반자로서 지방과의 協治(governance)로 전환

□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

- 지역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지역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 지자체 보조금, 양여금사업을 편입('05년 5조원 규모로 출발)
-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및 사후평가방안 도입
- 지역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과중심의 운용을 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 정부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국고 지원액 예산 편성시 최우선적으로 반영

□ 국가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 강화

- SOC·과학기술·산업 등 분야별 국가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개발사업의 종합성·효율성 도모

Ⅲ-4-2. 재원소요 및 조달방안

가. 재원소요

부문별계획

-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66조 5,732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
- 이중 국비는 44조 5,349억원으로 전체의 66.9% 차지
 - 국비는 계획기간동안 연평균 8.8% 증가
 - 회계별로는 균특회계가 27조 8,751억원, 일반회계 등 기타 소요가 16조 6,598억원으로 각각 국비의 62.6%, 37.4% 차지
 - 사업별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생활환경 인프라확충, 낙후지역개발이 각각 국비의 31.9%, 15.9%, 15.7% 차지
- 지방비는 14조 4,573억원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민자는 7조 6,110억원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

< 부문별계획의 재원소요('04~'08년) >

(억원)

	총계	비중	2004	2005	2006	2007	2008	04-08년 증가율(%)
총투자소요	665,732	100	108,562	123,164	133,708	143,940	156,358	9.5
○ 국비	445,349	66.9	74,155	81,773	89,111	96,314	103,996	8.8
· 균특	278,751	41.8	49,705	51,858	54,448	59,286	63,454	6.2
· 일반회계 등 기타	166,598	25.1	24,450	29,915	34,663	37,028	40,542	13.5
○ 지방비	144,273	21.7	26,400	27,350	28,276	29,995	32,252	5.1
○ 민자	76,110	11.4	8,007	14,041	16,321	17,631	20,110	25.9

< 사업별 재원 >

(단위: 억원)

	04	05	06	07	08	04-08년 합계	증가율(%) 04-08년
국가균형발전 총계	108,562 (74,155)	123,164 (81,773)	133,708 (89,111)	143,940 (96,314)	159,358 (103,996)	665,732 (445,349)	9.5 (8.8)
지역전략산업 육성	27,242 (24,072)	30,646 (26,907)	32,499 (28,882)	34,311 (30,326)	35,855 (31,677)	160,553 (141,864)	7.1 (7.1)
지방대학 육성	4,431 (4,431)	4,888 (4,888)	5,518 (5,518)	6,135 (6,135)	6,563 (6,563)	27,535 (27,535)	10.3 (10.3)
지역과학·기술 진흥	1,489 (925)	1,520 (990)	2,085 (1,256)	2,807 (1,725)	3,432 (2,125)	11,333 (7,021)	23.2 (23.1)
지역문화·관광 육성	14,696 (5,100)	13,912 (4,959)	16,020 (5,958)	18,287 (5,975)	22,470 (6,360)	85,385 (28,352)	11.2 (5.7)
지역정보통신 진흥	2,301 (1,615)	2,582 (1,660)	2,517 (1,384)	1,581 (664)	2,881 (1,684)	11,862 (7,007)	5.8 (1.1)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204 (174)	175 (145)	177 (147)	197 (167)	217 (187)	970 (820)	1.6 (1.8)
지역경제 활성화	14,417 (10,192)	16,410 (11,390)	18,169 (12,907)	19,937 (13,727)	17,860 (13,307)	86,793 (61,523)	5.5 (6.9)
개방거점 확보	4,456 (2,402)	8,764 (3,347)	9,905 (3,651)	8,651 (3,551)	9,352 (4,382)	41,128 (17,333)	20.4 (16.2)
지역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19,547 (12,713)	20,650 (13,016)	21,102 (13,721)	22,894 (15,083)	25,728 (16,318)	109,921 (70,851)	7.1 (6.4)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	1,923 (936)	2,318 (1,156)	2,710 (1,300)	4,984 (3,684)	7,220 (5,920)	19,155 (12,996)	39.2 (58.6)
낙후지역개발	17,856 (11,595)	21,299 (13,315)	23,006 (14,387)	24,156 (15,277)	26,780 (15,473)	111,097 (70,047)	8.5 (7.5)

※ () : 국비

지역혁신발전계획

□ 2008년까지 국비기준 총 28조 9,901억원 소요 예정(시·도 요구기준)

- 국비기준으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21.9% 증가
 - 재원별로는 군특혁신계정 사업이 68.6%로 가장 비중이 높고, 군특개발계정과 일반회계가 각각 12.6%, 11.7%의 비중
- 지방비는 계획기간동안 총 12조 3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 민자는 총 19조 3,419억원으로 32.0%를 차지
- 사업유형별로는 센터건립,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사업이 51.0%로 절반 이상의 비중 차지
 - R&D, 인력양성사업은 각각 13.6%, 11.1%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혁신 확충은 각각 19.1%, 14.5%의 비중
 - 해외마케팅, 창업보육 등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의 경우도 10.2%로 높은 비중

<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재원소요('04~'08년, 시·도 요구기준) >

(억원)

	총계	비중	2004	2005	2006	2007	2008	04-08년 증가율(%)
총투자소요	603,694	100	56,576	122,347	138,401	144,349	142,022	25.9
○ 국비	289,901	48.0	29,286	60,226	68,463	67,348	64,578	21.9
· 군특회계	235,586	39.0	24,719	49,221	56,403	55,821	49,422	18.9
· 일반회계	33,942	5.6	3,119	7,230	8,284	7,820	7,490	24.5
· 기타	20,373	3.3	1,448	3,776	3,776	3,708	7,666	51.7
○ 지방비	120,375	19.9	13,061	32,701	26,542	23,511	24,561	17.1
○ 민자	193,419	32.0	14,229	29,420	43,397	53,490	52,883	38.8

나. 조달방안

□ 국비지원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

- 부문별계획에 포함된 국비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04~'08년)의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지원
 - 지역혁신발전계획의 국비사업 중 부문별계획과 공통되는 사업은 11조원 규모로 추정
 - 지역의 추가요구(18조원 규모로 추정)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타당성 및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여부 판단

□ 균특회계 규모는 낙후지역 지원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확대하되, 회계규모는 중앙-지방기능 조정과 연계하여 운용

□ 지방재정력의 지속적 강화로 지방의 가용재원 확대

- 교부세율 인상 등 이전재원 증가
- 지역개발세, 레저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개발 및 과세 대상 확충

□ 민간자본 유치 방안 다각화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 융자, 민자유치, 자체부담, 외자유치 등 재원조달원을 다양화
- 지자체가 자기 책임하에 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중개기관으로 (가칭)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 검토
 -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프로젝트 컨설팅,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기초투자, 지방채(지방공기업채권) 인수 등

Ⅲ-4-3. 국가균형발전의 평가체계 확립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수
 -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기획능력과 자체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 평가시스템은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예산신청서에 대한 검토(사전평가)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 평가(사후평가)로 구분
 - 정기적으로 외부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자체 평가에 내재하는 평가의 중립성·공정성 등 문제점 보완

평가분류	평가주체	비고
시행계획 평가 및 예산신청서 검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지자체 예산신청의 연계성 중점 평가 · 지역간 사업의 중복 조정
컨설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	· 지방의 성과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실적평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 평가대상 사업은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지역개발 및 지역 혁신과 관련하여 추진중이거나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평가결과는 익년도 균특회계와 연구개발예산 등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지원과 연계

Ⅲ-5.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로드맵

추진전략	추진방안	주요과제	추진 일정				
			'04	'05	'06	'07	'08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		—		—
		지역의 혁신역량 기초조사	—	—		—	—
		지역혁신사업의 종합조정	—	—	—	—	—
		지역혁신박람회의 정기적 개최	—	—	—	—	—
	지역혁신역량 증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	—	—	—	—
		지방대학 구조개혁	—	—	—	—	—
		지역별 CRC 설립·운영	—	—	—	—	—
		정부R&D예산 지방지원비율 확대	—	—	—	—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	—	—
	산학연네트워크 강화	기술혁신 거점단지의 전국적 확대	—	—	—	—	—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	—	—	—	—
		산학연협력 수범사례 확산	—	—	—	—	—
		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 활성화	—	—	—	—	—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INNO-Cafe 조성	—	—	—	—	—
		대덕연구단지 혁신클러스터화	—	—	—	—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	—	—	—	—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	—	—	—	—
		테마파크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	—	—	—	—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낙후지역개발	지역별 클러스터화와 연계한 외자유치	—	—	—	—	—
		낙후지역 선정 및 재정지원	—	—	—	—	—
	농산어촌형 RIS구축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 수립·추진	—	—	—	—	—
		5도2촌사업 시행	—	—	—	—	—
		지방농업혁신클러스터 육성	—	—	—	—	—
		1차산업 혁신과 2,3차산업 융합	—	—	—	—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평생학습 프로그램	—	—	—	—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육성	—	—	—	—	—
		지역의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	—	—	—	—	—
		관광백화점 기획·개발	—	—	—	—	—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	특성화된 지역 문화육성	—	—	—	—	—
		신행정수도 건설	—	—	—	—	—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	—	—	—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	—	—	—	—	—
		친환경적·과학적 도시관리	—	—	—	—	—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수도권규제의 단계적 개선	—	—	—	—	—
		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	—	—	—	—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	동북아 경제중심권으로 개발	—	—	—	—	—
		다핵분산형구조로의 전환	—	—	—	—	—
		신행정수도 건설	—	—	—	—	—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자형·방사형 고속교통망	3개 연안축과 북부축 연계	—	—	—	—	—
	동서횡축간선망	낙후된 내륙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	—	—	—	—
	대외 개방거점	경제자유구역 등 개방거점 육성	—	—	—	—	—

계획수립
 부처협의
 정책추진

IV. 5년후 국가균형발전의 모습

5년후의 달라진 모습

- 역동적 발전 기반 구축
 - 2~3개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조성
 - 향후 5년간 요소생산성 증가율 1%p 상승
-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 낙후지역을 혁신활동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활성지역으로 전환
 - 도시대비 농촌소득 수준 상승 : 90%('02) → 100%('08)
-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 최고의 교육·문화·주거 여건을 갖춘 미니 신도시 10여개 건설
-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및 경쟁력 증진
 - 동경, 북경, 상해 등 동북아 중심도시와 경쟁가능한 비교우위 확보

변화의 動因

혁신주도 경제구조로의 전환	지역의 역동적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R&D투자확대 및 창의적 인력 양성 ○ 경제의 역동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상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외국 R&D센터 등 외자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및 상호학습 - 지역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 지역 전략산업 육성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총괄국	
연 락 처	(02) 2110-5593 (02) 3703-2685